

##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 언어 영역 듣기 대본

1. 이제 학생의 발표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밤하늘을 아름답게 수놓는 불꽃놀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꽃놀이를 하려면 발사에 필요한 장비와 꽃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꽃불’이란 말이 좀 낯설죠? 불꽃놀이를 위해서 총이나 포로 공중에 쏘아 올리는 물체가 바로 꽃불입니다. 꽃불은 겉을 감싸고 있는 ‘옥피’, 불을 붙이는 ‘도화선’, 꽃불을 터뜨리기 위한 ‘활화약’, 빛을 내는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중에서 꽃불이 개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꽃불의 크기와 도화선의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불꽃놀이를 볼 때 아름답게 변하던 불꽃의 색깔, 기억하시나요? 불꽃의 색깔은 별 안에 어떤 금속성분을, 어떤 총에 넣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속 성분을 총별로 다르게 나눠 넣은 별이 표면에서 내부로 연소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색깔이 나타납니다. 불꽃의 색깔을 다양하게 연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금속 성분에는 알루미늄, 나트륨, 칼슘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금속 성분에 여러 첨가물을 넣어 다양한 효과를 연출합니다. 대표적으로 음향, 섬광, 점멸, 비행 효과 등이 있는데, 그것은 보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2. 다음은 인터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편집반**: 안녕하세요? 교지 편집반 2학년 진달래입니다. 선배님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을 인터뷰해서 ‘우리들이 가고 싶은 대학’이라는 주제로 교지에 글을 실으려 합니다. 먼저 김 선배님부터 가고 싶은 대학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김 선배**: 다양한 분야를 스스로 선택해서 공부할 수 있게 많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면 좋겠고, 졸업 후 자신이 진출하려는 분야에 대한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상담해 주면 정말 좋겠네요.

**편집반**: 박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 선배**: 대학에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즐겁게 생활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교수님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며 인격적인 감화를 받고, 선후배, 동기들끼리 친목을 다질 수 있는 행사가 많으면 좋겠어요.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취업이나 진로를 고려해 현장 실습 경험을 쌓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편집반**: 이 선배님은요?

**이 선배**: 자부심을 갖게 해 줄 대학이면 좋겠어요. 건물이나 시설은 조금 낡았어도 여러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학교에 다닌다면 더 열심히 공부할 마음이 들 거예요. 또 내가 지금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성공한 여러 분야의 선배들과 만나게 해 주면 좋겠죠. 그리고 어려운 형편임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경제적인 지원도 잘 해 주면 좋겠어요.

### 3. 다음은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화를 할 때 다음과 같은 대화 방법을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모든 상황에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하게 활용하면 원만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첫째, ‘예측되는 결과 활용하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불러올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를 할 때 이런 예측을 활용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보죠. 습관적으로 늦잠을 자는 아이에게 비난을 쏘아붙이는 것 대신에, “네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학교에 지각하잖아. 그럼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겠지?”라고 논리적으로 말해 주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나 전달법’입니다. 이건 ‘너’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의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못마땅한 행동을 한 상대를 무턱대고 비난하기보다 상대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어떤 영향을 받고, 또 현재 ‘내’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 이죠. 그러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나의 입장을 잘 이해하게 됩니다. 아이가 방을 어지럽혔을 때 “넌 왜 이렇게 정리도 제대로 못 하니?”라고 말하는 대신에 “네가 방을 어지럽히니까 엄마는 정리하느라고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해서 속상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대화 상황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해서 대화를 완성해 보세요. 동아리 발표 준비를 위해 휴일 아침 학교에서 모이기로 한 상황입니다.

남학생 : (가쁜 숨) 안녕, 얘들아?

여학생 : 야, 지금 몇 시냐? 지각한 게 벌써 세 번째야.

남학생 : 너무 그러지 마. 버스를 타려는데 버스가 바로 내 앞에서 떠났어. 그래서 다음 버스를 타고, 내리자마자 막 뛰어왔단 말이야.

여학생 : \_\_\_\_\_

자, 이 상황에서 여학생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4~5] 다음은 수업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선생님** : 오늘은 기부 문화 정착 방안에 대해 토의하겠습니다. 먼저,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원인을 생각해 볼까요?

**여학생** : 선생님, 외국의 경우, 큰돈을 번 기업인들이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기부 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런 예를 볼 때, 우리나라에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것은 사회 지도층이 적극적으로 기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학생** : 글쎄요. 사회 지도층이 기부를 많이 하지 않아서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걸까요? 저는 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며 다른 생각을 해 봤는데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원인을 자기 자신보다는 다른 데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부를 기업과 같은 단체나 사회 지도층이 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일반 대중의 개인적인 기부가 적어 기부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조사에 따르면 기부 문화가 잘 정착된 나라에서는 전체 기부액에서 개인의 기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데 반해 우리나라는 낮다고 합니다.

**선생님** : 그렇다면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학생** : 정부에서 기부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지금보다 더 많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사회 지도층의 기부가 더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그런 기부 사례를 적극 홍보해서 사회 전반에 기부 문화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남학생** :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기부금 모금 단체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기부금 모금 단체를 정부에서 잘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기부 형태 중에서 비정기적인 기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정기적인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생님** : 맞습니다. 그런데 기부는 여러분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 잘 알죠?

**여학생** : 저희같이 돈을 벌지 않는 청소년들은 기부를 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 기부는 돈뿐만 아니라 지식, 재능 등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는 것으로 보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기부에 참여할 수 있겠죠?